

# 試論‘打’文法化的 統辭的 變化機制\*

임영택\*\*

---

◁ 목 차 ▷

- I. 序論
  - II. ‘打’ 概說
  - III. 過去 研究
  - IV. ‘打’의 文法化
    - 1. ‘打’ 관련 기존 연구의 문법화 과정
    - 2. 새로운 가설의 제기
  - V. 結論
- 

## I. 序論

‘打’字는 오랜 기간의 중국어 변천과정 중 다양한 의미 변화를 겪어 온 대표적 글자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출현했던 ‘打’는 본래의 ‘치다’, ‘때리다’의 미로 시작하여 여러 명사성 목적어를 거느리는 대표적 他動詞로 사용되다가, 후면에 동사성 목적어가 출현하여 서로 일정한 統辭的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련의 문법적, 의미적 虛化과정을 겪게 되었다.

과거 여러 中國語史 연구자들이 이 점에 착안하여 ‘打’에 관한 다수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였고 ‘打’의 文法化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지만, 대부분 ‘打’ 사용의 현상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단지 각 시대 여러 문헌에 출현하는 ‘打’의 개별적 해석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打’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해 줄 명확한 動因과 變化機制에 대한 풀이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각 시기를 아우르는

---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打’의 通時的 연구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우선 ‘打’ 관련 기존 연구결과들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한 어휘의미의 虛化 및 統辭構造 변화의 실례들을 재차 검증하여 ‘打’ 변화 이론의 타당성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打’ 문법화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통사적 가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기별 ‘打’의 의미적 특징과 변화, 해당 통사구조 내에서 ‘打’ 문법기능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이의 문법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打’ 概說

‘打’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東漢시기 王延壽의 《夢賦》로 알려져 있다.<sup>1)</sup>

1) “捎翹翹，拂諸渠，撞縱目，打三顛。”

요괴를 쳐내어, 떨어버리고, 괴상한 눈 가진 놈을 부딪고, 대가리 세 개를 쳐버렸다.

‘打’의 字形은 고문헌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출현하는데, ‘打(칠 타), 𢦏(칠 정), 𢦏(나무 쇠뇌 팽), 𢦏(부딪힐 정), 𢦏(종아리 정)’ 등의 여러 異形同字로 나타난다.<sup>2)</sup> 아마도 東漢 후기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sup>3)</sup>, 許慎의 《說文解字·手部》 265字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sup>4)</sup>, 宋代에 이르러 徐鉉의 《說文新附·手部》에 ‘打，擊也’라 기록되어 있으며, 《廣雅·釋言》에 ‘打，棓也’라 기록되어 있다.<sup>5)</sup>

字形으로 분석해보면, ‘打’의 좌측 변은 ‘手’이며 우측은 하나의 ‘丁’으로서 한 손

1) 張利明 〈試論“打”的語法化〉, 《華章》, 河北, 2011年 第1期.

2) 祝建軍 〈近代漢語動詞“打”的語義泛化〉, 《煙台大學學報》, 第15卷 第3期, 2002年 7月.

3) 祝建軍 〈“打V”之“打”的語法化探析〉, 《古漢語研究》, 湖南, 2004年 第3期.

4) 《說文解字》에는 ‘𢦏’만 출현하며, 그 의미는 ‘槿’이라 기록되어있다.

5) 張利明, 上同.

에 못을 들고 이를 쳐 고정시키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때리다’, ‘치다’, ‘가격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의미는 ‘撞擊’, ‘擊打’이며, 經史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로 口語體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sup>6)</sup>

과거연구를 통해 볼 때, ‘打’는 中古中國語시기에는 매우 낮은 출현빈도를 보이며, 口語성분이 강한 譯經, 歌謠, 對話의 문장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sup>7)</sup> 의미는 ‘손이나 어떤 기물로 사물을 치거나 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후면에 목적어가 동반될 경우는 모두 ‘치다, 때리다’의 동작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물들이 명사성 목적어로서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打’는 모두 기본 動作動詞용법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2) “樹神人現出半身，語衆人曰：‘莫拷打此人。’衆臣曰：‘何以不打?’”《興起行經·卷上·孫陀利宿緣經·第一》

나무의 신이 반신을 드러내며,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고문하여 때리지 말라.’ 신하들이 말하기를: ‘왜 때리면 안 됩니까?’

3) 臘月中，以杖微打肢間；正月晦日，復打之。《齊民要術·種李》

선달에 막대기로 갈라진 부분을 살짝 두드려주고; 정월 그믐에 다시 두드려 준다.

4) 唯王都無所關，意色殊惡，自言知打鼓吹<sup>8)</sup>。《世說新語·豪爽》

단지 王敦만이 이 일에 관심이 없어, 할 말이 없었으나, 태도와 안색이 모두 좋지 않았고, 북을 칠 줄 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러나 隋唐五代시기에 들어서면 ‘打’ 후면의 명사성 성분이 이전의 의미적 제약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며, 이로써 ‘打’의 의미도 引伸과정을 통해 점차 다양한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5) “爲報諸王侵早起，隔門催進打球名。”《王建·宮詞·第十四首》

6) 上同.

7) 蘇磊, 〈論“打”的語法化〉,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湖北, 2009年 5月.

8) ‘打鼓吹’는 兼語式이 아님. ‘鼓吹’는 두 악기의 병렬구조로서 본래 ‘鼓, 簫’ 등의 악기 합주를 뜻함.

왕에게 알리려 새벽 일찍 일어나, 문 앞에서 재촉하여 공놀이 할 명단을 넣었다.

- 6) 至廳，見一佛廩小胡，頭冠氈帽，著糜靴，在廳上打葉錢。《唐戴君孚·廣異記·郗澄》

큰 마루 앞에 이르러, 불단 앞에 한 오랑캐 아이가, 머리에 전모를 쓰고 발에는 사슴가죽 장화를 신고서, 마루에서 엽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7) 溫會在江州，與賓客看打魚，漁子一人忽上岸狂走。《唐段成式·酉陽雜俎·異蟲》

溫會가 江州에 있을 때, 손님과 함께 고기 잡는 것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한 어부가 물에서 물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달려갔다.

예5), 6)의 ‘打’는 ‘치다’의 의미이지만, 한편 ‘~을 가지고 놀다’의 의미로도 이미 引伸되었고, 예7)도 ‘사냥하다’, ‘포획하다’로 引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宋代에 이르러서는 ‘打’의 의미적 범위가 더욱 확장되면서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명사성 목적어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된다. 宋代 歐陽修의 《歸田錄》에 ‘打船’, ‘打車’, ‘打魚’, ‘打水’, ‘打飯’, ‘打衣糧’, ‘打傘’ 등의 어구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9)</sup> 이 때의 ‘打’는 본래 의미인 ‘때리다’, ‘치다’에서 이미 상당히 引伸·變化되었음을 알려 준다.

또한 元代에 이르러서는 前置詞로까지 발전한다고 하는데, 元明 이후의 문헌에서 이러한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8) “早是我打後邊來，聽見他從後邊哭著。”《金瓶梅·第二十六回》

일찍 나는 뒤쪽에서 왔는데, 그가 뒤에서 울고있는 소리를 들었다.

- 9) 到次日西門慶打廟裏來家。《金瓶梅·第四十回》

다음 날 서문경은 사당을 지나 집으로 왔다.

- 10) “打從<sup>10)</sup>這裏經過，顧倩莊家挑那擔兒，不想被你們奪了。”《水滸傳·12

9) 〈論“打”的語法化〉에서 재인용. “今世俗言語之訛，而舉世君子小人皆同其繆者，惟‘打’字爾。(打丁雅反)其本義爲‘考擊’，故人相毆、以物相擊，皆謂之打，而工造金銀器亦謂之打，可矣，蓋有槌搗作擊之義也。至於造舟車者曰‘打船’，‘打車’，網魚曰‘打魚’，汲水曰‘打水’，役夫餉飯曰‘打飯’，兵士給衣糧曰：‘打衣糧’，從者執傘曰‘打傘’，以糊黏紙曰‘打黏’，以丈尺量地曰‘打量’，舉手試眼之昏明日‘打試’，至於名儒碩學，語皆如此，觸事皆謂之打。”

10) ‘打從’, ‘從打’처럼 복합사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回》

여기를 지나가면, 농부를 하나 고용해서 그 짐을 지게 하라, 너희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

11) “門戶皆閉，又不知打從那裏去了。”《二刻拍案驚奇·卷三十八》<sup>11)</sup>

문들이 모두 닫혀있으니, 또한 어디로 지나가야 할지 모르겠노라.

전치사 ‘打’의 존재 여부는 본고의 서술 중 다루어야 할 부분 중 하나로서 과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전치사로의 문법화까지 논해질 만큼 ‘打’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虛化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 Ⅲ. 過去 研究

‘打’에 관한 기존 연구는 ‘打’가 제목으로 표기된 약 20여 편의 논문과 근대중국 어 어법 저작 중 주로 전치사편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때리다’, ‘치다’ 의미를 가진 순수 동사로서의 ‘打’는 별로 논의된 바 없고, ‘打’의 虛化과정 그리고 이후의 전치사용법에 관해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打’가 가진 본래적 의미의 다양성과 더불어 하나의 통사구조 내에서 일정한 위치 변화를 겪으며 어법범주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劉半農은 가장 이른 시기인 1926년에 〈“打”雅〉<sup>12)</sup>를 통해 ‘打’에 관한 101 가지 의미를 밝히고, 이를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뜻에서 ‘混蛋字’라 말한 바 있다.

胡明揚은 1980년대에 이르러 〈說“打”〉<sup>13)</sup>에서 ‘打’의 동사 의미를 ‘捶擊, 攻戰, 揮動手臂, 허화된 動詞’ 등 크게 네 종류로, 그리고 98 가지 세부 의미로 분류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를 기반으로 일상회화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의미의 ‘打’를 분류해낸 것이며, 특히 ‘打’ 의미의 虛化에 주목하여 동사로서의 품사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또한 朱星도 《漢語詞義簡析》<sup>14)</sup>에서 ‘打’를 여러 多義詞 중에서 구분해

11) 鄒偉林 〈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 《零陵學院學報》, 湖南, 2004年 第5期.

12) 〈打雅〉는 전통 訓詁書인 《爾雅》의 書名을 모방한 것임.

13) 《語言論集》,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4.

14) 太源, 湖北人民出版社, 1981.

내어 이를 ‘泛義詞’라 칭한 바 있는데, ‘泛義詞’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품사라는 뜻이 될 것이다.

90년대 근대중국어 허사연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近代漢語虛詞研究》<sup>15)</sup>에서 劉堅·江藍生·白維國·曹廣順은 ‘打’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었다. ‘打’는 대략 16세기부터 前置詞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의미는 대개 공간이나 시간의 경유와 기점을 표시하고, 이후로는 다른 글자와 결합한 형태의 복합전치사<sup>16)</sup>로서 사용되며 의미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明清시기의 많은 語料들을 제시해 이를 증명하였으며, 한편 ‘打’의 동사용법과 전치사용법의 차이, 양자간 淵源관계 등의 의문을 제시하여 근대중국어 동사의 虛化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打’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국어 文法化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어휘의미의 허화와 통사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祝建軍은 〈近代漢語動詞“打”的語義泛化〉<sup>17)</sup>에서 ‘打’가 본래의 ‘打+O’<sup>18)</sup>구조를 탈피하여 동사 목적어가 오게 되면서 의미적 다양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구조가 모종의 ‘결과’와 ‘목적’<sup>19)</sup>을 표시하게 되면서 ‘打’의 의미가 점점 모호해지며 본래 동사로서의 의미가 점점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打V”之“打”的語法化探析〉<sup>20)</sup>에서는 ‘打’가 일정한 의미 추상화<sup>21)</sup>과정을 겪으면서 ‘打+V’구조가 이내 語彙化 되어버리고, 이어 문법화가 더욱 가속되면서 ‘打’는 일종의 接頭詞가 된다고 하였다.

鄒偉林과 董爲光是 각각 〈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sup>22)</sup>과 〈介詞“打”來源補說〉<sup>23)</sup>에서 唐代에 새로이 탄생된 전치사 ‘打’에 대해 논하였다. 이들의 논점은 모

15) 北京, 語文出版社, 1992.

16) 複合介詞. 예를 들어 ‘自打’, ‘打自’, ‘從打’, ‘打從’, ‘由打’.

17) 《煙台大學學報》, 山東, 第15卷 第3期, 2002年 7月.

18) 이 때 ‘O’는 명사성 목적어를 의미함.

19) ‘作出’, ‘產生’의 의미.

20) 《古漢語研究》, 湖南, 2004年 第3期.

21) 중국어로는 ‘泛化’라 지칭함.

22) 《零陵學院學報》, 湖南, 2004年 9月.

23) 《語言研究》, 湖北, 2004年 3月.

두 이전 연구이론에 기반한 것으로서 통사구조의 위치 변화와 ‘打’ 어휘 의미의 허화가 전치사 ‘打’ 탄생의 배경이라 하였으며, 또한 근대중국어시기 전치사로 활발히 사용되었던 ‘自’, ‘從’ 등과 함께 사용되었던 동사 ‘打’가 의미 허화와 함께 이 전치사들을 대체하면서 동작의 시발이나 경유를 표시하는 전치사로 문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鄒偉林은 ‘打’ 후면에 위치하는 명사성 목적어의 의미적 성격에 따라 ‘打’의 다양한 의미가 표현되었으며, 이 때 ‘打’의 의미 허화가 발생하고 이에 수반되는 목적어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打’의 어휘의미가 점차 추상화된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과 이유에 관한 설명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통사적으로는 ‘打’가 또 하나의 동사와 連動구조를 형성하면서 주요 동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상실하여 의미적 허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구조가 고정화된 이후로는 보다 높은 문법화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吳福祥<sup>24)</sup>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전치사 ‘打’의 문법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蘇磊의 〈論“打”的語法化〉<sup>25)</sup>도 논지가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와 비슷하나 ‘打’ 추상화의 중요 요소로서 언어 내부의 발전규율과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여 ‘打’의 문법화과정을 설명한다. ‘打’는 중고중국어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 의미를 아직 유지하면서도 引伸된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의미의 變異과정이며 또한 ‘打’가 가진 본래의 적응능력 때문이라고 보면서 향후로도 많은 의미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과거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打+N’에서 ‘打+V’로 변화하는 과정에 ‘打’ 본래 의미의 추상화가 발생하고, 이후 ‘打+V’가 하나의 단어처럼 語彙化되면서 ‘打’가 일종의 접두사<sup>26)</sup>로 문법화되는 과정이며, 둘째로는, ‘打+V’의 문법화 과정 중 ‘打’ 후면에 결합되는 명사성성분이 ‘치다’, ‘때리다’의 직접적인 동작대상을 탈피하여 보다 추상적인 명사목적어가 결합한다거나, 심지어 모종의 장소, 방향 표시의 목적어가 ‘打’와 ‘V’ 사이에 개입하면서 ‘打’의 문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통사적 환경의 변화

24) 《敦煌變文語法研究》，嶽麓書社，1996.

25)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湖北，2009年 5月.

26) ‘動詞詞頭’ 혹은 ‘動詞前綴’라 칭하며, 王力先生은 ‘動詞的記號’라 했다.

27) 鄒偉林 〈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 58쪽 참조.

와 함께 話用的 배경도 ‘打’의 변화에 영향을 주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전치사 ‘自’나 ‘從’에 대한 代替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전치사로 정착하게 되는 주요인이 된다고 논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각 시기의 실례들을 통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현상적 설명에 그치는 느낌이 있으며, ‘打’ 관련 구조의 문법화현상에 대한 動因이나 機制에 대한 자세한 풀이가 결여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 IV. ‘打’의 文法化

‘통사적 위치와 조합 관계의 변화는 어휘 문법화의 중요한 유발요인’<sup>28)</sup>이라는 말이 있다. 문법화이론의 발생과 발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통사구조 내부 각 성분 간의 위치 변화는 이들 성분에 일정한 의미적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와 반대로 내부 구성성분의 의미 변화는 반드시 전체 구조의 통사적 변화를 유발시키게 된다. 본고는 이 두 명제의 선후 발생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하며, 우선 ‘打’ 관련 구조 내부성분의 변화, 즉 각 성분 간의 위치 변화와 이로 인한 ‘打’ 및 ‘打’구조 문법화에 관하여 과거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진행해보기로 한다.

##### 1. ‘打’ 관련 기존 연구의 문법화 과정

###### 1) ‘打+N’구조 基本 意味와 引伸 意味

과거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打’는 기원 5세기<sup>29)</sup>에 들어 ‘때리다’ 意味場에서 이전에 사용되던 ‘擊’을 물리치고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활발한 출현빈도를 보인다고 한다.<sup>30)</sup> ‘打’의 기본 어휘의미는 ‘손이나 기물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치다,

28) 劉堅·曹廣順·吳福祥 〈論誘發漢語詞匯語法化的若幹因素〉, 《中國語文》, 北京, 1995, 161-169쪽 참조.

29) 南朝 宋齊시기.

30) 張永言·汪維輝 〈關於漢語詞彙史研究的一點思考〉, 《中國語文》, 北京, 1995.



때리다, 가격하다’이며, 이 때 동작의 주체자는 일정한 활동능력을 지닌 생명체이다. 이는 ‘打’의 탄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動作動詞로서의 용법이다.

- 12) 伊便能捉仗打人, 不易。(世說新語·方正)  
그는 곧 무기로 사람을 때릴 수 있으나, 쉽지 않다.
- 13) 婢無故犯我, 我打其脊, 使婢當時悶絕。(搜神記·卷15)  
여종이 까닭없이 나를 범하려 해서, 내가 그 등골을 쳐버려, 여종을 혼절케 했다.
- 14) 所打煞者<sup>31)</sup>, 乃有萬計。(抱樸子·內篇·至理)  
때려죽인 자들은, 몇 만을 헤아린다.

이후 출현빈도의 증가는 ‘打’가 지닌 본래의 의미적 제한을 느슨하게 해주었으며, 후면의 목적어로 ‘때리다’의 동작 대상만이 아닌 일반적 사물이나 신체 부위 혹은 추상적 대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목적어들을 거느릴 수 있게 해준다.<sup>32)</sup> 이는 동작동사 ‘打’가 출현빈도의 증가와 함께 본래의 의미적 제한이 완화되는 유발 작용이 일어난 것이며, 따라서 후면에 동반되는 관련 목적어들의 의미적 범주가 다양해지면서 이전에 사용되던 목적어의 의미적 제한, 즉 ‘때리다’, ‘가격하다’의 대상만이 될 수 있는 명사성 목적어로서의 제한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打’의 구체적 습성은 후면의 명사성 목적어에 의해 결정되며<sup>33)</sup>, 이러한 서로 다른 話用的 환

31) 타동사 ‘打’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술보구조 ‘打煞’에서 술어로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32) 鄒偉林〈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에서 재인용. 宋代 劉昌詩의《蘆浦筆記》：“世間言打字尚多：左藏有打套局，諸庫支酒謂之打發，諸軍請糧謂之打請，印文書謂之打印，結算謂之打算，貿易謂之打博，裝飾謂之打扮，請酒醋謂之打醋、打酒，鹽場裝發謂之打袋，席地而睡謂之打鋪，包裹謂之打角，收拾爲打疊，又曰打逛。畚築之間有打號，行路有打火，打包，打轎。負錢於身爲打腰。飲席有打馬，打令，打雜劇，打譚。僧道有打化，設齋有打供。荷胡床爲打交椅，舞儼爲打驅儼。又宋歌曲詞：‘打壞木樓床，誰能坐相思。’又有打睡，打嚏噴，打話，打鬧，打鬥，打和，打合，打過，打勾，打了，至於打糊，打麵，打餅，打線，打百索，打條，打簾，打薦，打蓆，打籬巴。街市戲謔有打砌、打調之類，因併記之。”  
33) 예를 들어, 打船의“打”意義爲“造”, “打魚”의打意義爲“捕”, 打飯의“打”意義爲“吃”, 打傘의“打”意義爲“撐”。  
鄒偉林〈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零陵學院學報》, 湖南, 2004年 9月. 57쪽.

경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 15) 我在北打賀撥勝, 破葛榮, 揚名河朔。(梁書·侯景傳)  
나는 북에서 賀撥勝을 공격하고, 葛榮을 무찔러서, 황하 이북에 이름을 날렸다.
- 16) 逆風吹浪打船聲。(白居易·舟中讀元九詩)  
맞바람이 파도를 일어 배를 덮치는 소리.
- 17) 耕田人打兔, 蹠履人吃臠。(敦煌變文集·燕子賦)  
맨발인 사람은 토끼를 쫓고(사냥하고), 신발 신은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
- 18) 打, 麥打, 三三三, 舞了也。(樂府詩集·唐元和初童謠)  
타작하세, 밀 타작, 셋셋셋, 춤이 끝났네.<sup>34)</sup>
- 19) 有一家因打牆掘地。(唐段成式·酉陽雜俎)  
어느 한 집이 담장을 수리하고 땅을 파냈다.
- 20) 空中忽聞娘子打紗之聲, 觸處尋聲訪覓。(敦煌變文·伍子胥變文)<sup>35)</sup>  
공중에서 홀연히 아나의 빨래소리 들리니, 닿는 곳마다 소리를 찾아 다니노라.

상기 예15)에서 ‘打’의 의미는 ‘공격하다’, 예16)은 ‘배를 습격하다’의 의미이고, 예17)은 ‘사냥하다’, 예18)은 ‘두들겨서 ~로부터 분리시키다’의 의미, 예19)는 ‘치고 때리는 방식으로 수리하다’, 예20)은 ‘씻다, 세탁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唐宋시기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후 목적어의 의미적 범주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打’는 泛義詞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泛義詞로서의 지위란 ‘打’ 후면 목적어의 종류와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打’가 유지하던 본래 동작동사로서의 어법기능이나 어휘의미가 변화를 겪게 됨을 뜻하며, ‘치다’, ‘때리다’ 意味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위치함을 말한다.

이에 관해 祝建軍은 上述한 변화과정의 바탕 위에 각각 2002년<sup>36)</sup>과 2004년<sup>37)</sup>

34) ‘打麥’는 당시 농민들이 밀 수확과 타작할 때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麥打’는 ‘몰래 돌연 습격함’을 뜻한다. 즉, 6월 3일에 武元衡이 어두운 밤 습격을 당해 죽는 것을 암시하는 노래이다.

35) 〈‘打’의古代義項演變〉에서 예문 재인용. 羅曉春 《語文學刊》, 內蒙古, 2011年 第12期.

36) 〈近代漢語動詞“打”的語義泛化〉, 《煙台大學學報》, 山東, 2002年 7月.

37) 〈“打V”之“打”的語法化探析〉, 《古漢語研究》, 湖南, 2004年 第3期.

의 논문을 통해서 ‘打’가 문법화를 겪게 되는 주요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打’는 본래 動態性이 매우 강한 전형적인 動作動詞여서 이와 결합하는 문법적, 의미적 범주도 매우 典型的이다. 기타 여러 동작동사들도 마찬가지로여서 결합하는 목적어와 이에 따른 구체적 동작의 의미도 매우 전형적이고 전면적이게 된다. 따라서 동작의 구체적 주체, 대상, 동작의 강도 및 방향, 이로 인한 결과, 근거한 도구, 동작의 목적, 표시하는 역할 등등 그 표현 의미가 매우 다양해지게 된다. ‘打’의 이러한 특징은 이와 관련한 특정한 意味素를 가진 목적어들만 결합할 수 있는 의미적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한편 이렇게 전형적이고 전면적인 여러 의미소 표현들로 인해 ‘打’는 동일 意味場에서 上位詞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打’는 의미적 외연의 확대를 이루어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보다 융통성 있는 단어로 변화, 발전하게 되며, 이후 다양한 목적어들과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引伸과 虛化的 기본 틀을 갖추게 된다.<sup>38)</sup> ‘打’ 후면의 목적어가 보다 추상적 의미일수록 ‘打’의 引伸의미도 허화가 가속화 된다.

## 2) ‘打+V’구조의 발생

후면 목적어의 다양화로 인해 ‘打’ 자체의 어휘의미가 유연해짐으로써 ‘打’ 자신의 통사적 결합력이 자유로워지고, 이로 인한 목적어와의 조합에 있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打’ 본래 의미상의 虛化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앞서 제시한 劉昌詩의《蘆浦筆記》에서 ‘打’ 조합능력의 충분한 실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후 ‘打’의 의미 확장과 더불어 이로 인해 야기된 통사구조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打+N’뿐만 아니라 ‘打’ 후면에 또 하나의 동사가 수반된 ‘打+V’구조가 출현하여 활발히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sup>39)</sup>

21) 引軍打劫, 直到石頭店。(敦煌變文集·廬山遠公話)

38) 〈近代漢語動詞“打”的語義泛化〉 355쪽 요약.

39) 唐代에는 심지어 ‘打+A’형식들도 발견된다.

雀兒打硬, 猶自落荒漫語。(敦煌變文集·燕子賦)

雖然打強且抵敵, 終竟懸知自傾倒。(敦煌變文集·降魔變文)

- 군대를 이끌고 재물을 약탈하며, 곧장 石頭店에 당도했다.
- 22) 師因舉初祖於少林寺裏，面壁打坐九年。(祖堂集·保福和尚)  
선사께서 소림사에 초조를 천거하셨기에, 9년간 면벽 정좌 수행하였다.
- 23) 今日師兄到此，又只管打睡。(祖堂集·卷七)  
오늘 사형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또한 단지 잠만 잘 뿐이다.
- 24) 官人把手打招，叫：“買餠餽幾。”(清平山堂話本·簡貼和尚)  
관가 사람이 손을 잡고 인사하며, 餠餽<sup>40)</sup>을 좀 사라고 외쳤다.
- 25) 師云：“打躬近前。”(古尊宿語錄·卷九)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 굽혀 절하고 앞으로 나아오라.”

이는 통사구조 간 일종의 類推作用<sup>41)</sup>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打+N'의 기초 위에 '打+V'구조가 출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祝建軍은 吳福祥<sup>42)</sup>의 주장을 빌어 “打+V구조는 唐宋시기에 대량으로 출현하며, 이는 '打'의 통사적 지위에 이미 변화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 말했다. 즉, 이는 'S+打+V'구조의 출현을 뜻하며, '打'는 의미적으로 후면동사가 표시하는 모종의 동작행위로서의 '작용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만을 표현하게 된다. 즉 '打'가 표시하는 본래의 동작행위 의미는 약해지고, 단순히 후면동사 동작행위를 보조하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打+N'구조에서 어휘의미가 먼저 虛化되어 결합하는 대상이 다양화되고 의미 또한 추상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후 이로 인해 새로이 출현한 '打+V' 구조에서는 '打'의 어휘의미가 보다 허화됨으로써 후에 전치사용범으로까지 문법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는 현재 '打+V'구조의 출현과 '打'의 전치사용범에 관한 중국학계의 일반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解惠畚이 말한 바, '문법화 과정은 의미를 기준으로 하고, 통사적 위치는 그 방법이 된다<sup>43)</sup>'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지만, 의미와 통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이들은 '打'의 實意가 虛化되는 현상만 강조했을 뿐 그

40) 고대 面食의 일종.

41) 어떤 언어형태가 의미나 통사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1998), 227쪽 참고.

42) 《敦煌變文語法研究》，湖南，嶽麓書社，1996.

43) '打'의 語法化過程是“以意義爲依據，以句法地位爲途徑。”

〈談實詞的虛化〉，《語言研究論叢》，天津，南開大學出版社，1987.

원인과 변화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감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때 초기 형태의 ‘打+V’는 통사적으로 여전히 ‘述目’관계의 구조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상 連動구조나 述補구조로는 해석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吳福祥은 이에 대해 “‘打+V’구조는 당송시기에 대량으로 출현하며, 이는 ‘打’의 통사적 지위에 이미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하고, 또한 이미 ‘N+V<sub>1</sub>+V<sub>2</sub>’ 連動구조의 V<sub>1</sub>으로 충당되어 V<sub>2</sub>의 의미와 상관된 약화된 어휘의미를 표현한다. 이는 후에 전치사로 문법화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 및 당송시기의 ‘打+V’구조에 대한 잘못된 통사분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吳福祥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한 ‘打+V’형식에서 ‘打’는 결코 후면의 ‘V’와 형식적, 의미적으로 모두 連動구조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연동구조로 파악할 경우 ‘打’는 제1동사로서의 본연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대단히 어색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打+V’의 ‘打’는 祝建軍이 제시한 것처럼 ‘打+N’형식에서 ‘打’의 抽象化 내지 虛化 작용의 발생 이후 ‘N’ 자리를 대체한 또 다른 동사 ‘V’의 의미적 대체형식<sup>44)</sup>이기 때문이다. ‘打’는 이 시기 이미 새로이 출현한 일종의 代動詞용법<sup>45)</sup>으로 사용된 泛意動詞임이 분명하며, 의미는 ‘해내다’, ‘만들어내다’로서 표현의미가 매우 추상화, 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새로운 가설의 제기

‘打+V’구조의 출현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출현임이 분명하며, 이는 또한 ‘打’의미의 추상화 내지 일반화 현상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N’에서 ‘V’로의 전환이 ‘打’의 추상화에서 비롯한다는 것과 출현빈도의 증가만으로 새로운 통사구조의 탄생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새로운 어법구조의 탄생은 이를 강하게 推引할 결정적 동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이는 바로 언어 변화 발전의 일반적이고 보

44) 上述했던 바대로 ‘打’는 이미 추상화되어 구체적 동작 의미가 매우 약해진 상태임. ‘打’는 단지 후면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함.

45) ‘作’, ‘爲’, ‘行’ 등.

편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서 다음의 논의를 전개해보기로 한다.

### 1) 新형식의 출현과 영향

앞 절에서의 언급처럼 ‘打+V’의 출현은 ‘打’ 본래의 의미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打+V’구조의 통사적 분석 가능성은 ‘並列<sup>46)</sup>’, ‘連動’, ‘述補’, ‘述目’의 네 가지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최초의 발생 형식은 물론 병렬과 연동이며, 연동구조일 경우 ‘打而V’의 의미일 것이다. 중국어에서 제1동사와 제2동사의 통사적 결합관계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며<sup>47)</sup>, 역사적 발생의 선후관계는 ‘連動/並列’⇒‘述目’⇒‘述補’의 순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시간 발생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연동구조는 인간의 認知的, 直觀的 표현 순서에 따라 두 동사를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방법이며, 술목구조는 先秦 혹은 秦漢시기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어법현상으로서 言語類型學적으로 孤立語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법형식이다.<sup>48)</sup> 술보구조, 즉 결과보어식일 경우 ‘打’는 타동사로서 후면의 자동사와 조합을 이루어 모종의 동작행위를 설명하고, 후면의 동사는 ‘打’ 동작 이후 모종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述補構造는 중국어 문법학계에서 대략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sup>49)</sup>, 술보구조의 탄생과정에서 使動式이나 兼語式의 통사적 영향과 기여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다.<sup>50)</sup> 先秦시기 중국어에 존재했던 ‘Vt+O+Vi’<sup>51)</sup> 連動式과 兼語式이 結果補語式의 탄생과정에 중요한 통사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겹어식이 東漢시기에 오면 중요한 통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즉 새로운 형식의 겹어식이 출현하게 되며, 宋紹年은 이

46) 岩石無故而自墜落, 打擊殺人。《抱樸子·內篇·登涉》

47) 先秦中國語에서는 ‘V<sub>1</sub>+V<sub>2</sub>+V<sub>3</sub>’도 종종 볼 수 있다.

48) 蔣紹愚, “在漢語中, 名詞固然常常充當賓語, 但動詞充當賓語, 也是很常見的現象。”  
《近代漢語研究概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225쪽.

49) 蔣紹愚《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北京, 商務印書館, 2005, 305~333 참조.

50) 일찍이 王力선생을 시작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使動式과 兼語式이 술보구조의 탄생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1) ‘Vt+O+Vi’형식의 連動式과 兼語式은 同形異構이다.

를 ‘新兼語式’이라 칭한 바 있다.<sup>52)</sup> 아래 예26)~28)은 이러한 신겸어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빈번한 출현빈도를 보이게 된다.

- 26) 當打汝口破。《賢愚經<sup>53)</sup>·卷十一》  
 마땅히 너의 입을 때려 부숴버릴 것이다.
- 27) 今當打汝前兩齒折。《賢愚經·卷十一》  
 지금 마땅히 너의 앞니 두 개를 때려 부러뜨릴 것이다.
- 28) 我憎汝狀，故破船壞耳。《幽明錄<sup>54)</sup>》  
 나는 너의 모습을 미워하니, 배를 부숴 망가뜨릴 것이니라.

본래의 겸어식은 제1동사가 使役動詞이지만 東漢시기에 이르러 제1동사가 사역동사가 아닌 일반 동작동사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Vt+O+Vi’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겸어식은 동작의 방식과 결과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문장의 표현능력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南北朝시기와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新兼語式的 용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시 이미 활발한 출현빈도를 보였던 ‘Vt+Vi+(O)’ 結果補語式과 거의 동등한 용례를 보이게 된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唐代에까지 활발한 출현빈도를 보였던 신겸어식의 예들이다. 특히 예36), 37)의 경우, ‘打+O+V’구조가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 29) 石角鉤衣破，藤枝刺眼新。《杜甫·奉陪鄭駙馬韋曲》  
 돌부리가 내 옷을 걸어 찢고, 등나무 가지의 가시가 눈을 찔러 내 눈을 새롭게 하는구나.
- 30) 檢書燒燭短，看劍引杯長。《杜甫·夜宴左氏莊》  
 (촛불 켜고) 책을 보니 불수록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술 마시며) 칼을 보니 술은 마실수록 유쾌하구나.
- 31) 山鬼吹燈滅，廚人語夜闌。《杜甫·移居公安山館》  
 산귀신이 등을 불어 꺼버리고, 부엌 사람은 밤이 되니 말을 그치는구나.

52)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況》，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6.

宋紹年〈漢語結果補語式的再探討〉，《古漢語研究》，湖南，1994年 第2期.

53) 5세기 중엽 중국 北魏의 學僧 慧覺이 번역.

54) 劉義慶，403년~444년，중국 魏晉南北朝 시대. 《世說新語》와 동시기.

- 32) 誰能拆籠破, 從放快飛鳴。《白居易·鸚鵡》  
누가 능히 새장을 부숴뜨리겠는가, 새를 마음껏 날며 울 수 있게 놓아주리라.
- 33) 借問因何生, 秋風吹子落。(白居易·有木詩八首)  
후세의 인연이 어느 생일까 물으니, 가을바람 불어 잎사귀 떨어뜨리네.
- 34) 長繩百尺拽碑倒, 麤沙大石相磨治。《李商隱·韓碑》  
비석이 백 척 긴 줄에 끌려 넘어지고, 굵은 모래가 비석 비문을 갈아 없애 버렸네.
- 35) 吹歡羅裳開, 動儂含笑容。《李白·子夜四時歌》  
바람 불어 치마 날리니, 나를 미소 짓게 하네.
- 36) 若不打瓢破, 終當費酒材。《韋應物·重寄》  
만일 바가지를 두드려 깨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헛되이 술잔으로나 쓰이리라.
- 37) 急爲打船開, 惡許旁人見。《丁仙藝·江南五首之五》  
급히 배를 몰아 나아가리, 어찌 남이 보게 하겠는가?

상기 예 중 新兼語式<sup>55)</sup>이라 할 수 있는 예26), 27)의 ‘打汝口破’와 ‘打汝前兩齒折’를 이전의 ‘打+O’구조에서 후면에 단순히 동사 하나가 추가된 일종의 확장된 ‘打+O+V’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打+O’구조에 단순히 동사가 하나 결합되어 ‘打+O+V’가 되었다는 추론은 통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여하간 이 새로운 형식의 출현 이후, 이는 중국어 술보구조 전체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하며 結果補語式의 강력한 영향 하에 일종의 類推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이전의 ‘Vt+O+Vi’구조 중 兼語성분인 ‘O’가 당시 결과보어식의 영향을 받아 대대적, 전면적으로 後面 移動을 하게 되어 ‘Vt+Vi+O’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즉 자연스럽게 ‘打+V’와 ‘打+V+O’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남북조 시기에 이미 출현했던 전형적인 ‘打+V’, ‘打+V+O’형식을 보여준다.

- 38) 三祖壽樂器, 虺瓦吊, 孫家兒打折。《世說新語·輕詆》  
조상 3대가 보존해온 악기를, 간 심장도 없는 것 같으니라구, 마침내 손가

55) 梁銀峰도 이에 관해 논한 바 있음. 《漢語動補結構的產生與演變》, 學林出版社, 2006. “新兼語式是一種新產生的句法結構(syntactic structure), 但這種結構不是凭空產生的, 而是源于當時的一種話語結構(discourse structure)”.



놈이 두드려 분질러버렸구나.

- 39) 留此置主衣, 政是興長疾源, 可即時**打碎**。《南齊書<sup>56)</sup>·高帝紀》  
 이것을 군주의 의복 위에 두는 것은, 화근을 일으키는 근원이니, 즉시 쳐부수어야 할 것이다.
- 40) **打破**人軍曰敗。《顏氏家訓·音辭》  
 다른 군대를 쳐부수는 것을 敗라 한다.

이렇듯 동사성 성분이 자연스럽게 ‘打’ 후면에 위치하여 ‘打+V’구조를 형성하고 난 이후로는 또 한 번의 통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打+V’ 술목구조와 더불어 동시에 사용되었던 형식을 말한다. 전통적인 ‘打+V’와 신접어식의 변형으로 생성된 ‘打+V’ 간에는 외형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일종의 重新分析<sup>57)</sup>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先秦시기부터 이어져왔던 ‘V<sub>1</sub>+V<sub>2</sub>’구조 중 ‘打+V’구조는 본래 他動詞였던 ‘V’가 여러 종류의 自動詞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打’의 의미적 변화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학자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打’의 의미 허화로 ‘V’성분이 ‘打’의 목적어가 되어 다양한 동작성 표현들을 가능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중국어에 들어와서 ‘打’와 후면에 위치한 동사성분의 이러한 결합은 매우 특색 있는 현상으로서, 통사구조의 변화가 어휘의미의 자연스런 문법화를 유도해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면 될 것이다. ‘打’의 虛化 이후로는 ‘打V’의 語彙化가 발생되는데, 이는 ‘把+O+打V’구조의 출현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 41) 楊官人覷一覷, **把脚打一踢**, 踢在半空里, 却待脫落, 打一接住。《清平山堂話本·楊溫攔路虎傳》  
 楊官人이 힐끗 훑쳐보더니, 다리로 한 번 찼으나, 공중에 헛발질을 하였고, 벗겨지기를 기다렸다가, 받아 쥐었다.
- 42) **把兩包臊子劈面打將去**, 卻似下了一陣的肉雨。《施公案》<sup>58)</sup>  
 두 자루 잘게 썬 고기를 찢어 얼굴에 흩뿌리니, 마치 한 바탕 고기 비가 내

56) 南朝 梁나라 537년에 蕭子顯이 편찬.

57) 표면적인 표현형식의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사람의 認知心理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하나의 ‘접어식’이나 ‘술보구조’가 ‘술목구조’로 이해되거나 변화해가는 과정을 바로 이 ‘重新分析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8) 《清平山堂話本》은 明代, 《施公案》은 清末.

리는 듯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新兼語式과 結果補語式의 영향으로 통사구조 간의 유추 작용이 일어나 ‘打+V’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打’의 의미 虛化현상은 통사구조의 선제적 위치 변화 이후 비로소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여러 가지 일반 동사들이 ‘打’ 후면에 결합되면서 의미상의 확대를 발생시켜 ‘打’의 본래 의미가 ‘때리다’, ‘치다’에서 ‘作, 爲, 行, 發’ 등 대폭적인 추상화 의미로 변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근대중국어 시기 여러 문헌들을 통해 다수의 실례를 관찰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 전치사로까지 논의되는 ‘打’의 文法化 특성까지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통사구조의 위치 이동현상이 ‘打’ 후면에 동사성 성분이 오게 되는 직접적 動因 중의 하나로 추정해보았고, 이는 宋紹年의 술보구조 탄생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打’구조의 의미적, 통사적 발전과정의 한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 2) ‘打’ 文法化의 두 가지 경로와 前置詞 ‘打’

‘打’의 문법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打+O’구조가 新兼語式과 結果補語式의 영향을 받아 일종의 類推 현상이 일어나며 ‘打+V+O’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목적어는 의미적 혹은 화용적으로 충분히 생략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打+V’형식이 생성될 것이다. 이후 전후 두 개의 동사로 구성된 ‘打+V’는 전면의 ‘打’가 자연스럽게 의미적 허화과정을 겪게 되면서 述目구조인 ‘打+V’가 형성되는데, 이는 기존 ‘打’ 관련 연구학자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둘째, 先秦부터 사용된 ‘打+O’구조 후면에 또 하나의 동사구가 위치하는 것은 자연스런 어법현상인데, 이러한 ‘打+O+VP’는 連謂구조로 분석된다. 중국어에서 전후 두 개의 동사성 성분이 나란히 위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어법현상이지만 대등하거나 동등한 두 성분 간에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 文法化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게 된다. 이는 인류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술보구조도 이러한 언어현상에 기인해 탄생한 것이고, 前置詞 ‘打’의 탄생 또

한 예외는 아니다. ‘打’ 문법화의 또 다른 경로 하나가 바로 전치사 ‘打’의 탄생이다.

이제까지 본고의 서술을 정리하며 제시되었던 여러 형식의 통사구조를 아래와 같이 《祖堂集》에서 발견할 수 있음이 매우 흥미롭다. 《祖堂集》은 唐五代 시기의 중요 語料로서 중국어 역사발전 단계 중 각 어법범주나 어휘의미의 발전이 가장 변화 무쌍했던 시기의 자료이므로 中國語史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문헌이다. ‘打’의 초기 모습으로부터 각 시기 문법화과정을 겪으며 나타났던 여러 어법범주의 형태를 《祖堂集》 속에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음이 이채롭다 하겠다.

43) 踈山云：“一棒打殺龍蛇。”

踈山이 말하기를: “한 몽둥이에 용과 뱀을 때려 죽여라.”

44) 有人問師：“瑞和尚爲什麼卻被打殺？”

어떤 이가 선사께 여쭙기를: “瑞和尚은 왜 맞아 죽은 것입니까?”

45) 翠岳云：“和尚與摩道，豈不是打他雪峯過？”

翠岳이 말하기를: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雪峯을 때려 지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46) 去卽打汝頭破，住卽亦復如然。

가면 즉 너의 머리를 때려 부술 것이요, 머물면 또한 다시 그대로 둘 것이다.

47) 師云：“莫放我打睡。”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도록 놔두지 말거라.”

48) 悔不預知，若知，則便打折腳。

후회할 것을 미리 알지 못 했으나, 알았다 해도, 즉시 다리를 때려 분질러 버렸을 것이다.

49) “彼邪見道人，打破講席。”

저가 사악하게 道人을 볼 것이니, 강단을 때려 부수어라.

50) 大師云：“這阿師，他後打破泥龕塑像去。”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님, 그의 뒤에서 진흙 조각상을 깨부숴버리시오.”

51) 師云：“打破鏡來相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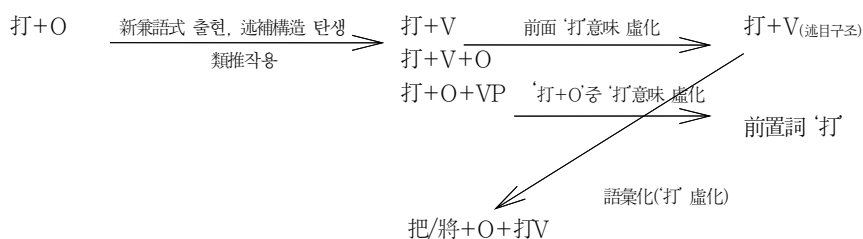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울을 깨부수고 와서 만나거라.”

52) 對曰：“請和尚打破將來。”

대답하여 말하기를: “스님 쳐부수옵소서.”

예)43), 44)는 연동식의 제1동사로 사용되었던 초기 형태의 ‘打’이며, 예45), 46)은 본고가 제시한 신겸어식이라 볼 수 있고, 예47)은 ‘打’가 의미 변화를 겪은 이후, 예48)~52)는 결과보어식에서 술어동사로 사용된 ‘打’의 예들이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며 앞서 제시했던 ‘打’ 문법화의 가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의 도식과 같다.



현대중국어 거의 대부분의 前置詞은 動詞로부터 虛化되어 온 것이다. ‘打’가 본래의 ‘치다’, ‘가격하다’ 의미에서 전치사로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역사기간 동안 통사적, 의미적 변화를 겪었을 것이며, 唐宋을 거쳐 元대에 이르러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면서 전치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打’의 전치사용법은 唐末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정설이며, 동사 ‘打’와 전치사 ‘打’ 간에는 아직까지도 의미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打’ 후면 목적어의 의미와 용법이 다양화 된 이후, 장소나 방위,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초기의 의미는 물론 ‘~을 향하다’, ‘~로 가다’의 의미였지만, 후대에 이르러 표현하는 의미가 ‘~로부터’, ‘~을 경유하여’ 등 공간의 경유나 경과한 장소 등을 뜻하게 되었다.

전치사 ‘打’로 변하기까지는 ‘打’의 허화가 관건인데, ‘打’ 관련 어법구조 중 ‘打+O+VP’는 ‘打+O’와 ‘VP’가 결합된 連謂구조이다. 다시 말해 두 개의 동사구가 동작 시간 발생의 순서에 따라 나란히 나열된 구조로서 古來로부터 중국어 문헌에서는 매우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통사구조라 할 수 있다. 언어의 보편성 측면에서 관찰해보면, 두 개 이상의 동사나 동사구가 결합하게 되면 이 중 한 부분은 반드시 문법화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고, 빈번한 사용빈도로 인해 일부분이 문법화 과정을 겪게 된다. 두 개의 동사구는 한 개의 핵심 동사구와 또 하나의 부차적

동사구로 나눌 수 있고, 예를 들어 ‘打O+VP’의 경우 ‘打O’가 의미적으로 ‘VP’의 부차성분으로서 동작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 도구, 경과 등을 설명하게 될 경우, ‘打O’는 곧 문법화의 경로를 걷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打’의 전치사용법이 탄생하게 되며, 이는 近代中國語 연구자 다수의 저작이나 논문 속에서 관련 연구성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고가 제시한 ‘打’의 문법화 과정 중 첫 번째 경로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전치사로 변화된 예라 할 수 있다. 예8)~11)과 함께 아래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

- 53) 去年臘月來夏口，黑風白浪打頭風。《卻歸巴陵途中走筆》  
작년 선달 夏口에 왔더니, 검은 바람 흰 물결이 머리 향해 올부짓는구나.
- 54) 有一人不打寒鳶嶺過便到這裏。《洞山悟本禪師語錄》  
어떤 한 사람이 寒鳶嶺을 거치지 않고 곧 여기에 이르렀다.
- 55) 新柳樹，旧沙洲，去年溪打那邊流。《辛弃疾·鷓鴣天》  
새 버드나무, 옛 모래섬이라, 작년의 냇물은 어디로 흘러 갔는가.
- 56) 這裏是五路總頭，是打那條路去好？《崔待詔生死冤家》  
여기는 다섯 갈래 길의 시작이니, 어느 길로 가야 좋겠는가?
- 57) 房房虛索索，東壁打西壁。《寒山詩》  
방마다 비어 희미하니, 동쪽 벽이 서쪽 벽을 두드리노라.
- 58) 你打華州，須從這條路去。《水滸傳》  
네가 華州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57), 58)처럼 ‘打’의 전치사용법이 확고히 자리잡은 이후의 문헌에서도 문법화 진행 이전의 ‘打’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V. 結論

하나의 새로운 품사, 새로운 의미가 언어의 어휘체계 내에서 실현, 완성되려면 하나의 意味場 내에서 각 유사 단어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영향 아래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써 새로운 의미가 태동, 정착할 수 있게 된다. ‘打’도 예외는 아니므로 이와 결합하는 다양한 명사성 성분, 동사성 성분과의 의미적 상호작용

속에서 ‘打’의 의미 변화, 즉 虛化작용이 일어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의미의 변화는 반드시 통사적 변화에 기인하기 마련이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打’ 虛化의 변화기제는 반드시 통사적 위치 변화가 우선되었을 것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魏晉시대에 출현했던 新兼語式이라는 어법형식이 ‘打’의 문법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당시에 존재했던 이전의 겹어식과는 다른 형태의 ‘打+O+V’ 신겹어식이 출현했으며, 이 구조는 당시의 중국어 動態 표현 범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結果補語式의 영향을 받아 목적어 ‘O’가 대대적으로 ‘V’의 후면으로 이동하면서 ‘打+V+O’구조를 형성한다. 목적어 ‘O’의 자연스런 생략현상과 함께 ‘打+V’가 만들어졌으며, 이로써 자연스런 ‘打+V’ 述目구조의 출현과 함께 ‘V’ 성분이 의미적으로 다양화되면서 ‘打’의 문법화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또 하나의 독립된 통사구조인 ‘打+O+VP’는 독자적인 虛化의 길을 걸으며 전치사 ‘打’로의 길을 확립하며 元·明代 이후 매우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다.

‘打’의 문법화과정에 대하여 의미론적 관점보다는 통사론적 각도에서 본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의미론과 통사론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랄 것 없이 언어 내부 구조의 변화와 발전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打’의 문법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너무 의미론에 치중하거나 개별 단어의 해석의 관점에 근거한 느낌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打’ 문법화의 변화기제를 통사론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며, 이는 기타 중국어 動態표현 양식의 문법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 【參考文獻】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  
 蔣冀騁·吳福祥, 《近代漢語綱要》, 湖南, 湖南教育出版社, 1997.

- 蔣冀騁,《近代漢語詞匯研究》,湖南,湖南教育出版社,1991.
- 太田辰夫,《中國語歷史文法》,北京,北京大學出版社,1987.
- 吳福祥,《敦煌變文語法研究》,湖南,嶽麓書社,1996.
- 馬貝加,《近代漢語介詞》,北京,中華書局,2002.
- 劉堅·江藍生·白維國·曹廣順,《近代漢語虛詞研究》,北京,語文出版社,1992.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況》,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6.
- 蔣紹愚,《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北京,商務印書館,2005.
- 宋紹年,〈漢語結果補語式的起源再探討〉,《古漢語研究》,湖南,1994年 第2期.
- 沈家煊,〈實詞虛化的機制〉,《當代語言學》,1998年 第3期.
- 胡明揚,〈說“打”〉,《語言論集》,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84.
- 解惠全,〈談實詞的虛化〉,《語言研究論叢》,天津,南開大學出版社,1987.
- 劉堅·曹廣順·吳福祥,〈論誘發漢語詞匯語法化的若幹因素〉,《中國語文》,北京,1995.
- 張永言·汪維輝,〈關於漢語詞彙史研究的一點思考〉,《中國語文》,北京,1995.
- 張利明,〈試論“打”的語法化〉,《華章》,河北,2011年 第1期.
- 鄒偉林,〈介詞“打”的產生及其發展過程〉,《零陵學院學報》,湖南,2004年 9月.
- 蘇磊,〈論“打”的語法化〉,《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湖北,2009年 5月.
- 祝建軍,〈近代漢語動詞“打”的語義泛化〉,《煙台大學學報》,山東,2002年 7月.
- 祝建軍,〈“打V”之“打”的語法化探析〉,《古漢語研究》,湖南,2004年 第3期.
- 董爲光,〈介詞“打”來源補說〉,《語言研究》,湖北,2004年 3月.
- 羅曉春,〈“打”的古代義項演變〉,《語文學刊》,內蒙古,2011年 第12期.
- 盧艷艷,〈“動詞‘打’+N”中“打”的義項及“N”的語義範疇研究〉,《通化師範學院學報》,吉林,2011年 11期.
- 李琦,〈論“打”的語義演變及原因〉,《周口師範學院學報》,河南,2010年 1月.
- 吳靜,〈對“打”的多義性認知淺析〉,《沈陽農業大學學報》,遼寧,2008年 7月.
- 熊應標,〈動詞“打”的詞義引伸途徑新釋〉,《賀州學院學報》,廣西,2009年 9月.
- 羅曉春,〈“打”的現代義項〉,《語文學刊》,內蒙古,2012年 第1期.
- 楊碩林,〈“打”的義項新解〉,《浙江經專學報》,浙江,第8卷 第2期.
- 李佳佳,〈從認知的角度探析常用詞“打”的多義模式〉,《綏化學院學報》,黑龍江,2011年 4月.
- 王曉明,〈從認知角度看動詞性“打”的詞匯語義〉,《湖北師範學院學報》,湖北,2012年 第1期.
- 張林,〈動詞“打”的論元結構和句法特點〉,《湘潭師範學院學報》,湖南,2001年 7月.
- 餘加柱,〈現代漢語自動句法分析中“打”的語法功能消歧〉,《語文學刊》,內蒙古,2007

年 第11期.

邢正陽·範欽評,〈漢語“打”的日譯淺探〉,《現代外語》,廣東,1994年 第2期.

金昌吉,〈談動詞向介詞的虛化〉,《漢語學習》,吉林,1996.

### **【Abstract】**

In order for new parts of speech and new meaning to be realized and perfected within the vocabulary structure of a language, semantic changes to the meaning need to take place under consistent mutual influence between each similar words within a single semantic category. It is by this process that new meaning is born and established. The word “Tah(stroke)” is no exception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changes to the meaning of “Tah” takes place under mutual influence between various elements of a noun and verb. In short a grammaticalization tendency occurs. Nevertheless, chances in meaning always derive from syntactic variations and thus study derives from this observ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this study based on the motif that the grammaticalization tendency of “Tah” is preceded by changes to the syntactic location, I have come to the hypothesis that New-Jianyushi expression, which first appeared in the Weigin dynasty, acted as a catalyst for the grammaticalization of “Tah.” A totally new-Jianyushi form of “Tah+O+V” came into existence. This structure, as a result of influence of resultative complement, displaced the object “O” behind the “V” to form a “Tah+V+O” structure. With the natural trend to omit the “O,” the “Tah + V” structure came into being and, together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V” element, the “Tah” grammaticalization came into existence.

Semantics and syntax both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internal structure of language regardless of their sequential order. However, existing literature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Tah” tend to either overly emphasize the semantics or ar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wor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tudy the change mechanism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Tah” from a syntactical aspect. As such,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ts attempt to break new ground by starting off from the premise that the change mechanism of “Tah” is deeply related to other grammaticalization of verbal expressions in the Chinese language.

**【主題語】**

‘打’, 문법화, 신겸어식, 결과보어식, 전치사

‘打’, 语法化, 新兼語式, 結果補語式, 介词

‘Tah’, grammaticalization, New-Jianyushi, resultative complement, preposition

투고일: 2017. 01. 18 / 심사일: 2017. 01. 20 ~ 02. 13 / 게재확정일: 2017. 02. 15